

□ 바람직한 학업문화를 향하여

잘못된 측정방식과 어긋난 학업문화

학점, 다양한 평가기준 적용되고

학생들, 커닝·대출등 잘못된 관성 버려야

‘대학은 죽었다’라고 말한다. 생성과 자치 연대의 장이었던 대학이 죽었다고 말한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때문이다. 점수는 그래서 중요해졌다. 10명의 학생이 있다면 개개의 성향도 파악하고 ‘머리는 좋은데 인간성은 나쁘다’든지 ‘단견

의 수를 어떻게 다 포괄할 것인가? 물론 그러자는 말이 아니다. 단지 학점을 매기는 방식이 영 내키지 않을 뿐이다. 어떻게 4년간 한 개인이 살아왔던 행적을 5백원짜리 동전하나만 넣으면 찰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종이한장이 대변할 수 있는가?

그 수치들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보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종이에 쓰인 대로 3.5가 2.5 보다 1만큼 성실했는지 1만큼 능력이 뛰어났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 1은 다음아닌 그만큼의 요령이나

노력하지도 않고 좋은 학점을 바라거나 혹은 책상에 미리 써두는 노력만으로 좋은 학점을 기대하는 것. 또는 남이 쓴 레포트를 다 베껴쓰고는 ‘나 할 도리 다했소’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물론 우스개소리로 우리는 베끼면서라도 공부했는데 너네는 복사해서 내냐는 어른들도 계시지만 말이다.

학점이 우리의 행적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척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커닝이나 대리출석, 베껴 쓴 리포트를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

학기말만 되면 학점에 울고 웃었다

숫자는 어느새 우리 위에 섰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점수로 환산된다

이후 사회까지 비판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기존 사회와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규정할 수 없는 꿈틀거림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무슨 회망을 걸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동안 제갈길 가기에 바빴던 대학과 제 앞가림밖에 할 줄 몰랐던 대학생은 표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밖에서 대학의 역사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 운운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에게는 높은 점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 거대한 사회속에서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이든 수치화되지 않는 것은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몰라도 사람 좋다’든지 하는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1백명의 학생들을 모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수치를 높여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학기말만 되면 학점에 울고 웃었다. 89점 B+를 맞거나 94점 A를 맞았다면 정말 원통한 일이다. 숫자는 어느새 우리 위에 섰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과외 활동도 점수로 환산된다. 세상은 온통 숫자 천국이며 숫자보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학점을 없애 버리자는 말인가? 도대체 점수를 매기지 않고 그 많은 경우

학점이 우리의 행적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척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커닝을 덮어서는 안된다

편법일 수도 있다. 우리가 숫자들과 연관 맺어온 12년 남짓한 시간을 떠올린다면 이 얘기가 마냥 끈꾸를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집착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공연히 저질러 왔던 술한 부끄러움들,

만 이제 강의실, 책상위에서 빼곡히 들어찬 글씨들을 봤을때 그것이 꼭 자기 필적이 아니라 해도 그냥 써먹을 수 없기지만 말자. 잘못된 자로는 잘 수 없지만 그렇다고 눈금을 거꾸로 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최수정 기자>



□ 성적경고자 연도별 추이 분석

전체학생중 5% 성적경고자

문리대 7.8%로 최고, 성적경고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성적표가 나올 때쯤 비상체제로 돌입한다.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 집앞 문턱에 있는 우편함을 이리저리 살핀다. 그리고는 불안한 한숨을 쉰다. ‘혹시 집에서 먼저 슬쩍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정신이 없다. 성적경고장을 중간에 가로채려는 눈물어린 노력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성적경고자는 약 5%선으로 비슷하다. 97년 1학기 성적경고자는 총 9천 2백 13명중 4백 61명으로 5.1%이며, 이중 문리대가 7.8%로 가장 성적경고자가 많은 단대로 집계 되었으며 이어 법대 7.1%, 정경대 6.9%로 비

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반대로 한의대는 0.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 치대 1.2%와 음대 1.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97년 1학기 1%대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낸 한의대, 치대, 음대는 94년 이후 수치상 커다란 변화 없이 꾸준히 낮은 성적 경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의대, 치대와 같은 계열에 있는 의대경우 96년 1학기 0.7%를 제외하고는 2~3%대의 수치를 내고 있어 비교된다.

수원캠퍼스는 97년 1학기 성적경고자와 96년 2학기 성적경고자를 비교했을때 6백38명에서 7백96명으로 24.8%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각

단대별 성적경고자 증가추이를 작년과 비교해 산업대가 99명으로 86.8%가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자연대 1백 13명으로 37.8%, 사회대 1백 26명으로 30.0%, 공과대 3백 21명으로 18.0%, 체과대 66명으로 4.8%, 외국어대는 71명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성적 경고제를 놓고 의견들이 많다. 80년대 중반 자율화 조치 이후 없어졌던 것이 80년대 말 부활된 것을 두고 ‘학생들을 억압하는 수단이므로 폐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경고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제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 통제가 되고 정신차려 공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성적경고제의 역사나 그 부활 의도가 어떻게 간에 학점 관리가 대학생활 전체의 평가척도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경고를 받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자신의 성실성을 되물어야 할 것이다.

<최현일 기자>

□ 인터뷰-김종규 취업정보실장

좁은 취업문 저학년때부터 두드려라

학점·토익점수 고루 좋아야 취업용이...성적, 꾸준한 상승곡선 그려야

학생들이 학점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취업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점이 얼마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며 어느정도의 학점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한지, 바람직한 학점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캠퍼스 김종규 취업정보실장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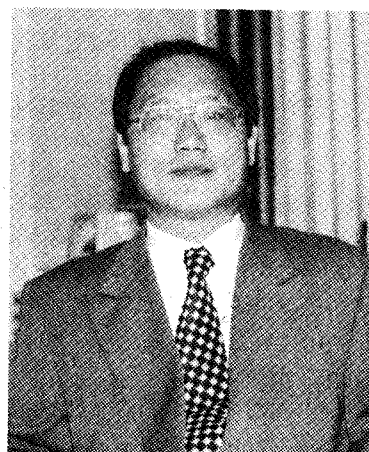
“전학년 평균평점 3.3이상, 토익성적 750점 이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취득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점과 토익성적의 하한선이다. 설상가상으로 여학생들은 기업에서 모집인원을 아예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3.6~3.7학점 정도는 되어야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도 예년의 수준. 올해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취업경쟁률이 사상최악이다. 졸업예정자는 32만명이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고작 7만 5천여명으로 평균경쟁률이 4대1에 이른다.

네명중에 세명은 낙방의 고배를 마실수밖에 없는 취업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김실장은 “요즘 기업들은 한 분야에 매몰된 사람보다 전인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 특수분야외에는 출신학과보다 학점



과 토익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슷한 성적이라 해도 ‘1학년이후 성적’이 꾸준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는 사람과 ‘성적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비슷한 학점대를 유지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학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성실히 했던 사람을 뽑겠다는 기업의 채용방침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1학년때부터 학점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어학공부도 일찌감치 시작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김실장은 “능력은 다들 저런정도가 없는 게 어학이므로 힘들더라도 중도에 관두지 말고 꾸준히 하라”고 권한다. 또 한가지, 입사

동료들은 대부분 비슷한 토익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훗날 웃는 사람이 되려면 토익점수에만 매달리지 말고 회화 및 실용영어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과목이든 애착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자신에게 그 과목이 필요한가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발전을 위해서는 전공과목과 연계된 인접학과의 과목을 듣는 ‘학제간 공부’를 해야한다고 김실장은 당부했다.

<최현일 기자>

연도	대학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범대	가정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음대	체대	총계
96	1학기	210명	46명	175명	17명	14명	6명	3명	0명	3명	11명	14명	497/9158명
		9.9%	7.0%	7.6%	4.9%	2.9%	0.7%	0.7%	0%	0.7%	2.2%	2.9%	5.4%
	2학기	167명	40명	138명	17명	17명	39명	1명	0명	1명	13명	25명	461/8771명
97	1학기	8.1%	6.4%	6.1%	5.0%	3.7%	4.9%	0.2%	0%	0.2%	2.6%	5.4%	5.2%
		165명	49명	159명	7명	17명	26명	6명	3명	6명	9명	16명	465/9219명
		7.8%	7.1%	6.9%	2.0%	3.7%	3.0%	1.2%	0.4%	1.2%	1.9%	3.5%	5.0%

<서울캠퍼스 최근 2년간 성적경고자 추이>

어이불 몰라도, 기술 하나만



Worldwide Leader

끊임없는 기술연구와 개발로
세계 10대 자동차 공조업체로 성장한 한라공조!
이제 “제2의 도약”을 선언하며
세계 5대 공조업체로 도약합니다.

1989년에 만도기계와 포드자동차와의 합작으로
설립되고, 그동안 자동차용 열교환기 및 공조기기를
생산하여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업체에 공급해온
한라공조는 창립 10년만에 명실공히
세계 10대 자동차 공조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한라공조는 세계화 추진전략의 방안으로, 89년에는
북미시장에 한라공조 캐나다현지법인(HCI)을
설립하였고, 96년과 97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최초로 태국(HTC)과 포르투갈(HPC), 인도(ACI)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
현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한라공조는 “인간, 고객, 기술”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와 복지를 추구하는
세계 제일의 자동차 공조업체로 성장하겠습니다.

HCC 한라공조주식회사
Halla Climate Control Corp.

본사 및 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23번지
TEL: (042)930-6114 FAX: (042)930-6129

전주공장:
전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44-1
TEL: (0333)80-6114 FAX: (0333)81-0220~1